

## 주여, 대언자와 조력자를 주소서(렘 강해 설교 33)

성경말씀: 렘38:1-13

부모의 가장 큰 바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서 성실한 인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사람다운 사람: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권위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막10:45), 유다 백성의 타락, 율법 책을 잃어버림, 요시야 왕 시대에 율법 책 발견,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은 같은 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던 두 아버지, 한 아버지는 짐승 같은 자식들을 낳고 괴로움 속에 죽었다(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주 앞에 악한 자들). 다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아는 자손들을 남겼다. 이 사람들이 유다의 희망이 되었다(아히감, 미가야, 그달리야, 선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 성도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들을, 성도들을 훈련하는 교회

###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왕, 대언자, 사도, 대언자, 목사 겸 교사, 복음 전도자, 집사 등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하나님의 대사, 대변인,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미워한 사람: 대언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좋아한 사람: 거짓 대언자  
대언자: 가장 힘든 사역자, 제사장과 왕(임무, 존경), 이스라엘에서는 대언자의 삶이 대단히 힘들었다.  
예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대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림, 결국 가장 큰 대언자이신 예수님도 죽인다. 그래서 대언자들의 피를 그 세대에게,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겠다고 하심(마23:29-36).  
스테반의 질책 행7:51-52

예수님의 3중 직무: 제사장, 왕, 대언자, 초림 대언자, 지금 제사장으로, 1000년 왕국 왕  
마16:13-14,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침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대언자 중 하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대언자로 여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고백: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 그들이 그분을 죽임(눅24:19-20).  
여러 대언자 중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다고 함: 눈물로 진실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음.  
오히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대언자를 잡아 진창이 가득한 지하 감옥에 집어넣음. 십자가 처형  
들 다 고통과 슬픔의 사람,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함. 거절, 고독, 버림받음  
오늘 읽은 렘38:1-13의 예레미야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을 상기시켜 준다.

이것은 정확하게 부활의 구절은 아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구출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은 뒤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비슷하다. <주여, 대언자와 조력자를 주소서>

### 대언자를 거부함

37장을 보면 바빌론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로 인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남, 예레미야는 백성과 떨어져 지내려고 베냐민 땅으로 들어감. 이리야라는 파수대 대장이 그를 붙잡고 그가 바빌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 한다고 하며 통치자들에게로 데려옴. 그들이 화를 내고 그를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둠.  
시드기야 왕이 그를 불러냄, “네게 무슨 말이 있느냐?”, “왕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나를 여기 두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 뜰에 두고 함락될 때까지 매일 빵 한 조각을 그에게 줌(21절). 어려운 삶이다.

예레미야의 메시지(38:2-3), 예레미야는 한 번도 이 메시지를 바꾼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절박한 상태에 있었다. 포위가 됨, 공급 물자가 없음, 빵 배급제, 물 부족, 공성되, 보루, 이런 시점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항복해서 목숨을 건지라”는 것이었다.

실로 이것은 듣기에 아주 좋지 않은 말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다.

“유다의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바빌론 사람들을 들어 심판의 도구로 쓰시니 항복하라.”  
그런데 시드기야의 신하 4명(스바다, 그달리야, 유갈, 바스홀)은 이런 소리가 아니라 승리한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였다(1).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간청함(4). 이유: 백성의 변영이 아니라 해를 구함, 도시에 남아 있는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함, 이 말은 많이 도망하였음을 뜻함(2절)  
비록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어도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짐: 온 백성의 손이 약하게 됨

과연 이 4인방의 주장이 옳은가? “이 사람이 백성의 번영이 아니라 해를 구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예레미야만큼 유다 백성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목숨을 내걸고 진리를 외침. 그때나 지금이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나쁜 소식으로 들린다.

“하나님이 다 눈감아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다 잘될 것이다.” 라는 말이 훨씬 듣기 좋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대언자들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오순절 은사주의의 기복 신앙). 기록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참 대언자이다.

그 하나님이 회개하면 죄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선포하는 자가 참 대언자 “동성애, 간음, 은행, 살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입니다.”라고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자 거짓 대언자들은 거짓 평안을 선포한다(렘8:11). 그러면 렘5:30-31이 이루어진다.

이 시대 교회와 목사가 해야 할 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심판이 임한다. 사실 이것이 가장 좋은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이다. 목사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섬겨라. 희생해라, 성경을 읽어라, 자녀 교육, 가정생활에 신경을 써라. 복장, 언행, 예배 태도

### 대언자를 감옥에 넣음

이 4인방은 결국 시드기야의 허락을 받고 그를 말기야의 지하 감옥에 가둠. 이 지하 감옥은 아마 빗물을 저장해 두는 큰 물 저장고였을 것이다.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이들은 무죄한 자를 스스로 죽여 피를 손에 묻히려 하지 않고 감옥에 던져서 굶어죽게 하려 하였다. 이런 물 저장고/지하 감옥은 병처럼 5미터 정도의 깊이로 병처럼 만들어져서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다. 메시아 시편 69편 2, 14-15절과 상황이 비슷함

### 대언자가 구출됨

지하 감옥에 빠져 음식도 물도 먹지 못하는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가 지하 감옥의 진흙 속에 빠져 꼼짝 못하는 신세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런 핍박과 낙심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였기에 복음과 성령이 전달되었다. 틴데일, 백성에게 그들의 말로 성경을 전달해 준 죄 밖에 없다. 화형

대언자는 핍박을 받았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내셨다(시40:1-2). 우리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을 받아주소서.”(눅23:46)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덩이에서 부활해 올리셨다.

도구: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 아무 힘도 없는 이방인, 내시요, 종이였다. 이름의 뜻: ‘왕의 종’, 김머슴, 김개똥, 이름 자체가 그는 아무 지위도 없는 자요, 힘이 없는 자임을 보여 준다.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외칠 때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만 이 이방인은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용기를 뱉다.

1. 그는 왕의 집에 나갔다(8).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은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기 전에는 힘들다.
2. 그는 시드기야 왕을 만났다(8). 왕은 지금 베냐민 문에서 직무를 수행 중, 갑자기 종이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3. 그는 진실을 말하였다(9). 대언자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므로
4. 시드기야의 마음을 움직였다(10). 30명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습격할까 봐 30명을 허락함
5. 그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다(11). 예레미야의 상태가 안 좋음, 굶은 로프로 그를 들어 올리면 상처가 날까 봐 먼저 오래되어 부드러운 형질을 찾아서 그것을 겨드랑이에 대게 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세심하게 배려함(마10:41)
6.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39장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다(렘39:15-18). 에벳멜렉의 생명을 구출해 주신다.

### 이 시대의 요청: 신실한 목사와 목사를 돕는 자

곳곳에서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진리를 외치는 목사가 필요하다. 그를 돕는 자가 필요하다.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여, 주님의 수확 밭에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목사와 조력자들을 보내 주소서.